‘불교’ 검색 결과 앱, 하나 더

부산 홍법사, 국내 최초 사찰 앱 ‘SMART 홍법사’ 선보여… QR코드 적용 등 최신 기술 접목

부산을 대표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도량 홍법사(주지 심산)와 디에스마인(대표 정덕민) R&D팀이 공동 기획 · 개발한 스마트폰 앱리케이션(이하 앱) ‘SMART홍법사’가 본격 출시됐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통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SMART홍법사’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홍법사의 생생한 소식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목적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을 이르는 말로 간단히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워드 앱’이라고 줄여 부를 수 있다.

홍법사 앱은 홍법뉴스, 예불, 법문보기, 사찰탐색 등 총 4개 카테고리로 나눠졌다. 사진과 텍스트 형식뿐 아니라 음성과 동영상 기능을 통해 법회 현장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안방의 불자들에게 전한다.

디에스마인 정덕민 대표(홍법사 기획실장)는 “여전히 안드로이드마켓과 앱스토어에서 ‘불교’란 단어로 검색하면 5개 남짓의 앱이 나오는 반면 기독교 또는 교회로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앱이 검색된다”며 “소규모 교회에서도 독자적인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계는 아직 스마트폰을 통한 포교에 관심이 저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법사는 4월 ‘SMART홍법사’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돼 아이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S-IPTV’ 스마트폰과 IPTV가 결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방송의 송출 및 청취가 가능한 양방향서비스 앱 출시가 임박해있다.

‘SMART홍법사’는 2010년 10월초 이미 앱 등록을 마쳐 사실상 우리나라 불교 관련 앱 중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심산 스님은 “교계에서는 앞서간다고 하지만 사회 전반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졌다”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단위 사찰에서 전용 앱을 개발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앱 운영 및 관리할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서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사찰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지원 기자

큰스님 릴레이법문 35일 구법여행

부산 여래사 불교대 3월 7일~4월 11일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은 201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35일간의 구법여행인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수행하면 행복해집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법회는 학기 초 입학생들이 신심과 수행을 통해 참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3월 7일 정관 스님(前 범어사 주지, 영주암 회주)을 시작으로 14일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21일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 전법도량 의장), 28일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장), 4월 4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여래사불교대학 학장), 11일 대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 은하사 회주) 등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여래사불교대학 대법당에서 마련된다.

한편, 여래사불교대학은 “교육은 문명의 꽃이요, 문명은 교육의 열매”라고 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두 눈을 뜬 이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로 개원했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대학은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의 인가를 취득해, 정규 과정을 이수하면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051)466-4080 박지원 기자

범어사 보제루 복원불사 ‘개토제’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일제잔재’라는 비난을 받아온 경내 보제루의 복원 불사에 따라, 2월 25일 오전 11시 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봉행했다.(왼쪽서 세번째부터) 범어사 총무국장 정산 스님, 정여 스님, 원정희 금정구청장 박지원 기자

청소년 위한 ‘허허원 장학회’

3년째 무료급식소 운영… 지역사회 향한 ‘자비행’

부산 남구 유일의 불교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조계종 허허원이 ‘허허원장학회’로 청소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허허원(주지 정타)은 2월 28일 정오 부산 범천동 더파티뷔페에서 장학회의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첫 장학생으로 양궁 꿈나무 박시경 선수(해연중 1)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해연중학교 1학년 신입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5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급식비 및 교재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소정의 장학금을 졸업까지 총 3년간 지급한다.

정타 스님은 “맑은 가난이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허허원장학회는 사찰 인근의 해연중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측이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면 장학회는 졸업까지 3년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허허원에서는 장학회뿐만 아니라 ‘나누리 청소년자원봉사단’ ‘행복한동행 자원봉사단’ ‘나누리 간병사회’ 등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행 020-01-040927-0 예금주 허허원 박지원 기자

“태허 스님 문도회 활성화”

제4대 부산경남교구 종무원장 성 주 스님 취임

대한불교불입종 제4대 부산경남종무원장에 성주 스님(부산 금불사 주지)이 취임했다.

불입종 부경종무원은 2월 27일 정오 부산 명장동 금불사에서 종무원장 이취임을 봉행했다. 제3대 법륜 스님(성암사 주지)에 이어 4대 종무원장이 된 성주 스님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임기에 돌입했다.

성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故 태허 스님 문도회를 활성화해 불입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안으로 종단의 발전과 종도 간 결속력을 강화하며 밖으로는 이웃 종단과의 화합을 다져 내실 있는 불입종 부산경남교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범어사 울산포교원 여여선원 주지 효 암 스님

문화공간 같은 법당 선보일 터

공업도시 울산의 교통 중심지인 공업탑로터리에 불교문화포교 중심도량 여여선원(주지 효암 · 사진)이 문을 연다.

정식명칭은 ‘범어사 울산포교원 여여선원’. 밀양 삼랑진읍 여여정사와 부산 양정동 여여선원에 이은 3번째 ‘여여선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선원장이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이라는 것. 그러나 앞선 2곳은 정여 스님이 직접 가꾼 도량인 반면, 울산 여여선원은 상좌인 효암 스님의 발원으로 이뤄졌다.

효암 스님은 “사실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여여선원은 은사스님의 절 이름 이면서 부산 여여선원에서 소임을 맡아 살았던 도량이라 그만큼 애착이 가는 이름”이라며 “은사스님께 다른 이름보다는 여여선원으로 정하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현재 3월 11일 개원법회를 수일 앞두고 불사는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초 불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작년 동지부터 빈공간인 9층에 임시법당을 차리고 주지스님과 2명의 기획팀이 개원 준비에 돌입했다.

선원이 자리한 공업탑로터리 C1020빌딩은 원래 쇼핑센터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폐업한 상태다. 여여선원은 8층 240평 공간에 법당과 강의실, 공양간, 다실 등을 두루 갖춘 도심형 포교당으로 세련되게 꾸며진다. 정작 주지스님은 직전에 기장군 산중의 장안사에서 총무소임을 맡았던 만큼 도심과 효암 스님은 사뭇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처럼 비춰진다.

이어 스님은 “산중에 있다가 도시로 왔지만 겉모습만 바뀐 것 뿐 여전히 이곳은 부처님도량이고 내 마음이기에 어느 곳에서나 한가지 마음”이라며 “산에 있는 사람 따로, 밑에 있는 사람 따로는 아니고, 이 도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라 크게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포교당으로서의 포교전략만큼은 산중에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장안사에서는 기도와 정진을 강조했다면, 여여선원은 기존의 불교대학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접목한 ‘불교문화포교’를 펼칠 예정이다.

효암 스님은 “4월초 개강하는 불교문화대학에는 탱화와 벽화, 전통의식, 건축양식, 역사 등 폭넓은 불교문화에 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했다”며 “향후 건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불교회관으로 가꿔, 불교미술관, 불화연구소 등을 설립할 발원도 조심스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은 2010년 10월, 울산을 경유하는 KTX역명 ‘울산-통도사역’을 놓고 기독교계가 크게 반발하며 감정의 골이 깊은 도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여선원이 들어서는 대로변에는 크고 작은 이웃종교시설 수십여 곳이 밀집해 있다. 그만큼 울산에서 부처님도량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많은 않아 보였다.

효암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펴면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배우고 돌아가서 또 남에게 전해주면서 자연스레 도량이 넓어질 것”이라며 “이웃종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묵묵히 정법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052) 267-0108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